



## 탈모에 관한 7가지 잘못된 상식

1. 샴푸를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샴푸나 린스 사용 자체는 탈모와 무관하다. 비누 사용도 탈모와 상관이 없지만 샴푸의 pH가 비누보다 산성이어서 모발 질감에는 더 유익하다.

2. 모자나 가발을 쓰면 머리가 더 잘 빠진다.

모자를 사용하면 공기가 두피에 통하지 않아 대머리가 촉진된다고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 야구 선수나 직업 군인의 탈모가 일반인보다 더 많지 않은 것도 그 이유다.

3. 대머리는 정력이 좋다.

대머리도 일반인과 똑같은 양의 혈중 남성호르몬을 갖고 있으므로 정력과는 무관하다.

4. 여성에게는 대머리가 없다.

여성에게도 대머리가 많다. 단지 여성은 남자와 달리 앞 이마 헤어라인이 유지가 되고 정수리 부위의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5. 두피 마사지가 탈모에 좋다.

전혀 근거 없다. 특히 대머리의 경우 남성호르몬이 모낭을 작게 만들어 털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두피 마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6. 빗질을 자주 하거나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촉진된다.

모발의 탈락은 주로 휴지기 모발이 저절로 빠지는 것이므로 빗질을 자주 한다고 해서 탈모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은 두피를 청결히 해주므로 지루피부염과 같은 원인에 의한 탈모를 줄여줄 수 있다.

7. 대머리는 한 대를 건너뛰어 유전된다.

대머리는 자식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50%이며 바로 다음 대에 발현이 되어 대머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대나 혹은 3~4대를 건너서 발현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 대를 건너서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